

# 댓글은 토론 공간이 아니므로 논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의 의미와 논리 지향의 관계

## 「사회학 강독」과 「사회조사방법론」 강의 페어링

사회학과 1학년 201621884 정지훈, 홍은영 교수님 송하석 교수님 지도

### 목적

인터넷에서는 많은 비논리적인 댓글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장만 있는 댓글, 잘못된 근거를 사용하는 댓글, 상대방을 욕박지르는 댓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찬반만을 표시하는 댓글, 또 욕설이 섞인 댓글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비논리적인 댓글을 달고자 할까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왜 댓글을 논리적으로 쓰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 '사회학 강독'에서의 강의페어링

인터넷 공간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인터넷은 민주주의에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는 인터넷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토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수많은 개인이 자유로운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인터넷 댓글은 그런 바람직한 토론의 수단으로 잘 사용되지 않아,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조사방법론'에서의 강의페어링

설문 조사 방법, 자유롭게 작성된 응답을 분석하는 방법, 통계적인 확인을 진행하는 방법,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회 조사 방법론에서 배운 조사 과정을 최대한 따라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조사 설계 및 실행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3개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응답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며, 응답자 수도 적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일부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줄 뿐, 전체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문은 인터넷의 구글 폼(설문 조사 도구)을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습니다.

### 설문 조사지 일부

7. 다음 문항은 당신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쓰는 댓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주장을 담은 댓글을 많이 쓰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근거를 담은 댓글을 많이 쓰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의 반박을 다시 반박하는 일이 재미있다.	1	2	3	4	5
내 댓글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대개 길이가 길다.	1	2	3	4	5
나는 내가 관심있는 주제를 다룬 게시물에 좀 더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내 느낌을 드러내는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다.	1	2	3	4	5
댓글에 욕이 포함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	1	2	3	4	5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댓글을 다는 일에 적극적인 편이다.	1	2	3	4	5

### 조사 결과

옆 그래프의 파란색 직선은 댓글 인식이 높은 경우의 회귀식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직선만이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 0.002). 해석하자면, 댓글을 토론 공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구분된다는 의미입니다.

의견지도자 여부와 댓글에 대한 태도 자체는, 다른 상황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회귀분석에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댓글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경우에만 의견지도자 점수가 논리성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옆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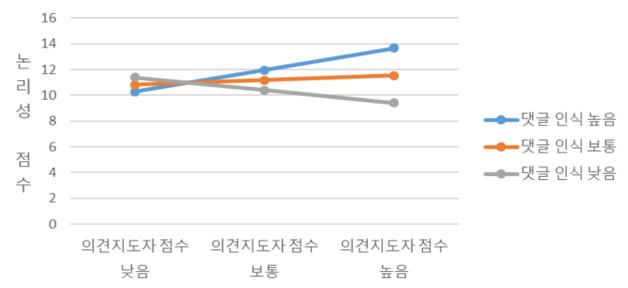
재미있게도, 상호작용 외에 나이(어릴수록 논리적인 성향), 성별(남성이 논리적인 성향), 팟캐스트 활용도(많이 사용할수록 논리 추구), 인터넷 채팅 활용도(적게 사용할수록 논리 추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 결론

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을 토론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 스스로가 인터넷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댓글을 논리적으로 쓴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기존의 비논리적 댓글에 대한 분석은 주로 증재자 투입, 악성 댓글의 적극적인 제거, 실명제 강화 등의 '게시판'적 측면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주관적 인식 또한 비논리적 댓글이라는 현상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의견지도자 여부 - 댓글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호작용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193	2.541			4.405	0.000
지도자_의미_상호작용_방향_MC처리_리틀_성별_나이	0.179	0.050	0.396		3.602	0.002
나이	5.408	0.915	0.680		5.907	0.000
인터넷_활용_팟캐스트	-0.332	0.097	-0.646		-3.435	0.003
인터넷_활용_IRS	0.736	0.309	0.311		2.382	0.028
인터넷_활용_IRS	-0.905	0.424	-0.218		-2.135	0.046

a. 종속변수: 논리성\_총합

참고 문헌  
박선호, 「인터넷 토론문화 개선을 위한 역할제와 실명제의 비교」, 한국고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년 8월  
박선호, 「인터넷 토론규 사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인터넷 토론 의식도 연구」, 『회법연구』, vol.9, 한국회법학회, 2006년, 295쪽 - 320쪽  
송중석, 「실명제와 익명제 공존영역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인제대학교, 2006년  
김승철, 「가짜의 확산성과 공적성이 댓글의 시인성과 밀접하게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2012년  
이종철, 「숙의(deliberation) 관점에서 본 인터넷 토론 게시판 글 분석: 의견 조정성 예측을 위한 다수준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vol.56 No.2, 한국언론학회, 2012년, 405쪽 - 435쪽  
이준호, 「인터넷 게시판 토론과 정치 토론 요율성」, 『한국언론학보』, vol.50 No.3, 한국언론학회, 2006년, 393쪽 - 423쪽  
신용석, 임민수, 「웹2.0의 사용이 온라인 토론의 참여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vol.27 No.1, 한국교육공학회, 2011년, 247쪽 - 266쪽  
서이중, 「댓글의 상호성능을 통해 본 인터넷 게시물의 공론장적 성격」, 『Law & Technology』, Vol.5 No.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 센터, 2009년, 63쪽 - 77쪽

조민경, 「온라인 토론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미국 최고기수입만대 토론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년 2월  
최인혜, 「인터넷에서의 의견표현과 토론능숙도에 대한 연구」, 뉴스 댓글의 성격과 댓글 이용 경험에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년  
이광수, 「인터넷 토론공간에서의 의사소통행위양식에 대한 연구」, 『방송사설자와 '취미' 세우기』 관련 댓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이론과 정책』, vol.2 No.2,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년, 25쪽 - 50쪽  
이준호, 「누가 인터넷 토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한국언론학보』, vol.51 No.3, 한국언론학회, 2007년, 358쪽 - 384쪽  
박진영, 「온라인 공론장의 속의 역할 비교」, 『지방행정연구』, vol.27 No.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년  
이준호, 임민수, 「숙의(deliberation) 관점에서 본 인터넷 토론 게시판 글 분석: 의견 조정성 예측을 위한 다수준 모델 검증」, 『한국언론학보』, vol.49 No.1, 29쪽 - 56쪽.